

강이야기  
 3  
 River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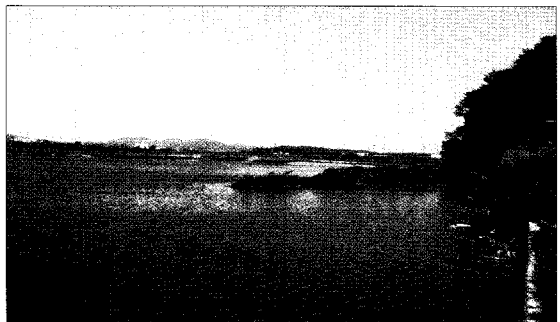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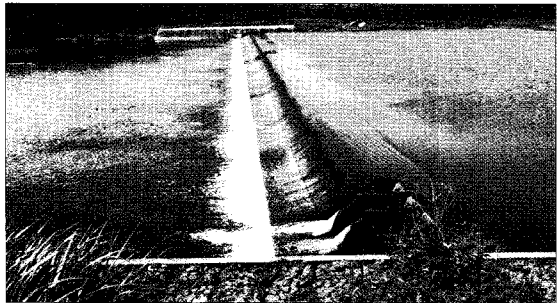
박경현 | 경산시 무학고등학교 교사  
 (fran59@hanmail.net)

# 금호강,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강

강변 구릉지의 갈대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치 비파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아름다운 하천 금호강.

포항시 죽장면 보현산 주변의 어느 계곡에서 발원하여 영천댐을 거쳐 영천의 중심 시가지지를 지난 금호강 물줄기는 대창면 방면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남쪽지류인 대창천과 경산시 내리리와 와촌면 용천리가 마주하는 곳에서 만난다.

두 강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강을 가로지른 낮은 무늬이 보(沓)로 인하여 강은 넓은 호수가 되어 주변의 절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풍광을 지어낸다. 일제 강점기 초기 시절에 농업용수를 가두어 두기 위하여 축조된 무늬이 보가 만든 호수를 향해 강의 상류 방향으로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그리 두렵지 않은 절벽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올라서면 무성한 소나무 숲 뒤로는 대학교의 건물들이 녹색에 대비된 선명한 색깔을 하며 즐비하게 놓여 있고, 북서쪽으로 팔공산의 한 자락인 무학산이 넓은 가슴으로 우리 지역을 푸근하게 감싸고 있다. 강의 하류 방향인 눈 닿는 데까지 강의 북편으로는 끊이지 않는 팔공산 자락이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넓은 평원이 전개되어 배산임수의 이상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으니 언제 보아도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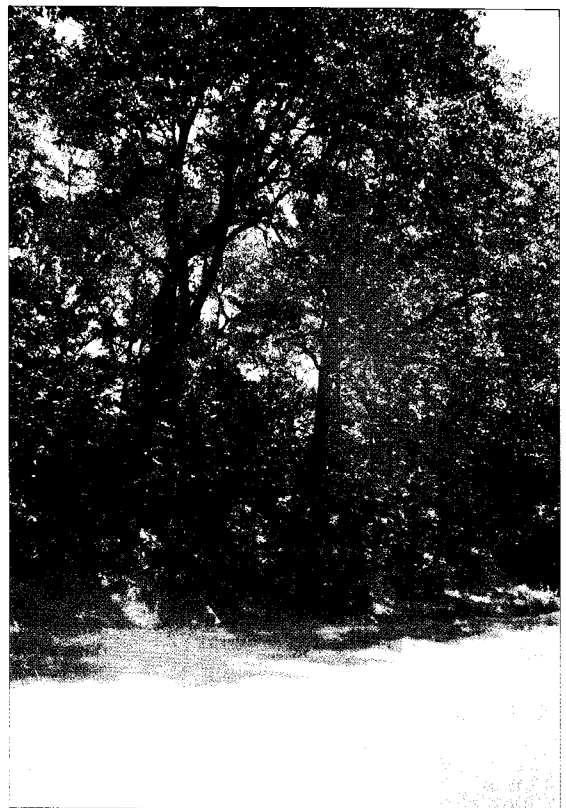
무학산의 자락을 비켜 북동쪽으로 확 트인 시야에 들어오는 끝없는 평야가 외촌면과 청통면, 그리고 하양읍과 영천시와 접해있는 넓은 금호평야이다. 절벽의 능선도 잠시, 가파른 내리막길로 이어져 강 가장자리와 나게 되는데 그곳엔 일제강점기 시절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어진 양수장의 붉은 양철 지붕이 주변의 신타락과 대비되어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속칭 아름다움의 백미인 '강정'이다. 강의 하류 지역인 대구 방향에 위치한 대조동과 환상동을 흥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된 긴 제방을 따라 걸어보면 강의 가장자리를 따라 무성하게 발달된 습지 식물들의 왕성한 생명과 쉬지 않고 흐르는 넉넉한 강물과, 그리고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양수장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몇 아름이나 되는 버드나무가 육중한 제중에 못 이겨 드러누워 자라 있고, 그 옆엔 수백 년이 족히 되어 보이는 포구나무가 어린 시절 우리들이 때

달려 놀 때의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낮은 야트막한 능선과는 달리 아름드리 고목의 참나무들이 소나무와 섞여 산을 따라 등성등성 숲을 이루고 있고 이 능선의 왼쪽 낮은 절벽 그 아래로 금호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숲과 절벽과 강과 강바닥의 퇴적지에 형성된 끝없는 과수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금호강의 본류와 강가의 촌락과 들판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팔공산 줄기의 무학산, 그리고 영천 시가지의 모습들이 이룬 절묘한 조화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능선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절벽을 깎아낸 곳에 그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누각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구연정이다.

구연정은 금호강 중류 지역의 암벽 위에 위치한 목조로 이루어진 기와집 정자로서 정면 2칸, 측면 2칸의 작은 규모이며 온돌방 2칸 마루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북 모양 바위를 파서 기둥을 세우고 지은 정사각형 건물로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암벽 위에 북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경관은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1973년 무렵 건물의 일부를 보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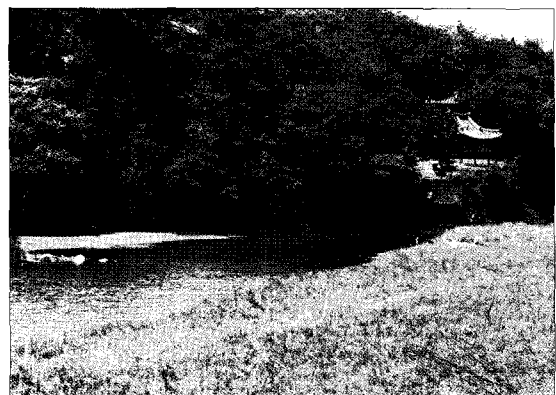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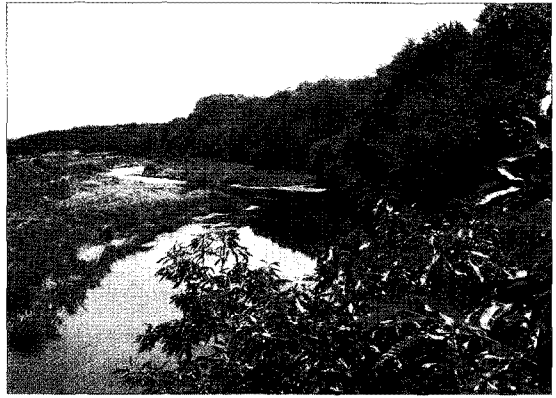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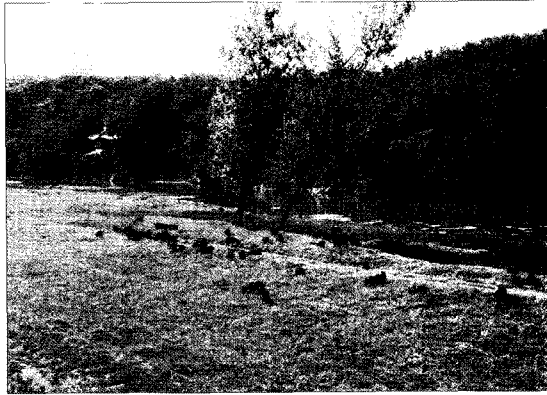
였고 건물 상부 구조수법은 지붕을 합각(合閣)으로 처리하기 위한 독특한 구조법을 사용하였고, 방 천장은 우물반자로 건물 외기도리 위에 합각이 형성되어 용마루의 길이가 짧아지고 처마의 만곡도가 크다.

조선 후기에 전통적 건축 기법으로 주변 경관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정자 건물이다. 누각의 주변에는 축조될 무렵에 심어진 듯하다 고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조선 헌종 14년(1848)경 직재 김익동(1793-1861)이 건립한 정자이다. 김익동은 조선 순조 19년(1819)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로 서저서로는 『직재문집(直齋文集)』이 있다. 이 건물의 뒤쪽에는 사당이 한 채 있는데, 이는 1973년 정자의 뒤편 대나무밭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옮겨 세운 것이다. 구연정은 2002년 2월 14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415호로 지정되었다.

구연정을 지나 영천시 대창 방면으로 절벽 위 능선 길을 따라 1km 이상 이어진 길을 걸어가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창면 신대리 방면으로 강을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 강 건너편 제방을 따라 다시 강의 하류 방향으로 걸어 보면 절벽의 위에서 내려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든다. 영접의 세월 동안 산을 깎아 절벽을 만든 물줄기는 오늘도 자신이 만든 풍광들을 감상하듯 유유히 흐르고 있다. 웅장함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내 몸을 던져 안기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의 품속 같은 친근한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줄기가 한바탕 휘어지는 곳 절벽의 한중간을 깎아내어 날아갈 듯이 지어 둔 구연정은 올려다보면 그 절묘한 조화는 우암 송시열이 음풍농월하던 화양구곡의 절정 암서재가 연상된다. 누군가 저 누각에 앉아 눈앞에 천천히 흐르는 물줄기와 절벽을 돌아 나온 바람과 눈길을 막지 않는 들판과 하늘과 술잔을 마주하며 시를 읊었을까. 나도 걸던 걸음을 멈추고 어린 시절 그렇게도 높아 보이던 저 절벽의 끝에 서서 정자 앞 깊은 강물에 가쁜 숨을 몰아쉬기 위하여 연잎처럼 떠오르던 자라들을 세어 보던 때를 생생히 기억해 본다.

다시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으로 향하면 왼쪽으로는 강과





함께 달리던 산줄기의 작은 언덕은 수직으로 끝이 나고 멀리 않은 곳엔 또 다른 산줄기의 절벽이 보(狹)가 만든 홍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의 본류와 지류가 Y자 형으로 만나는 지점이 가까워지면서 하얀 몽돌들이 달그락 달그락 발아래에서 부딪힌다. 바람이 없는 날은 거울 같은 수면의 아래로 비친 또 다른 절벽과 깊이가 보이지 않는 물속 풍경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다. 강에 배를 띄운 사람들이나 갈대들이 무성한 강가에 낚시를 드리운 사람들이나 유유히 날고 있는 철새들이나 그 역시 이미 강의 일부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위로 석양이 질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감동이 번져 온다.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귀한 무대를 마련해 놓았을까'하는 감사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절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바위섬이 주는 독특한 느낌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에 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점이 되어 두고두고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곳을 지난 강줄기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서 그 오른쪽에 하얗이 있다. 물가의 양지바른 마을이라는 이름의 하얗은 읍 지역 어디에서나 조금만 땅을 파보면 모두가 모래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의 퇴적지에 발달된 촌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문고의 선율처럼 아름다운 물줄기라는 뜻의 금락리, 동서로 길게 놓여 있는 강의 형상을 생각하며 동서리, 지금은 물길에 바뀌었지만 아득한 옛날에는 실개천으로 둘러싸인 섬이었을 법도 한 도리 등 이곳은 온통 저 금호강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 마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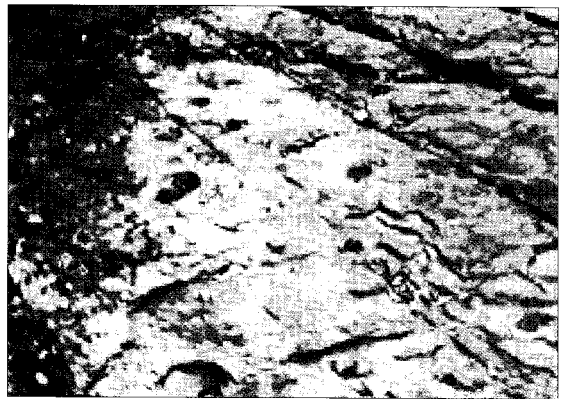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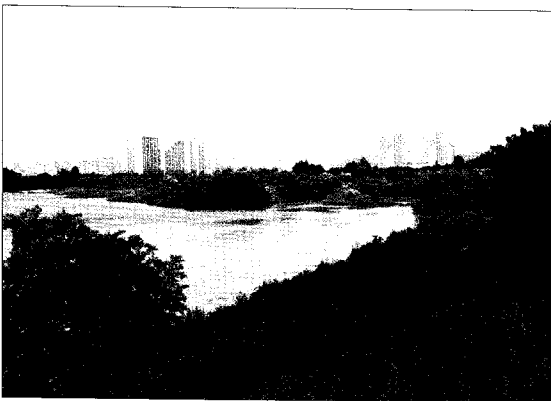
하얗읍 지역을 벗어나 1km 내려가면 강을 가로지른 잠수교가 정겹게 놓여 있고, 잠수교의 건너편엔 둥근 모래섬으로 인해 이름 붙여진 환상동과 큰 새가 앉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대조동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강이 퇴적시켜준 비옥한 모래밭으로 인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묘목 생산지가 되고 있으니 이 또한 금호강이 마련해 준 삶의 터전이 아니겠는가. 조금만 홍수가 쳐도 침수되는 대조동과 환상동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축조된 긴 제방을 따라 걸어보면 강의 가장자리를 따라 무성하게 발달된 습지 식물들의 왕성한 생명과 쉬지 않고 흐르는 너럭한 강물과 그리고



아닐 수 없다.

잠수교가 강을 이어 주기 전 나룻배가 유일한 교통의 수단 이였기에 이곳 은호리의 작은 나루터는 강의 전경을 더욱 아 름답게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강을 가로질러 전선처럼 밧줄 을 매어 놓고 그 밧줄을 잡아당기며 배를 끌던 뱃사공은 이제 흑백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빛바랜 장면이 되어 아득한 그 리움으로 물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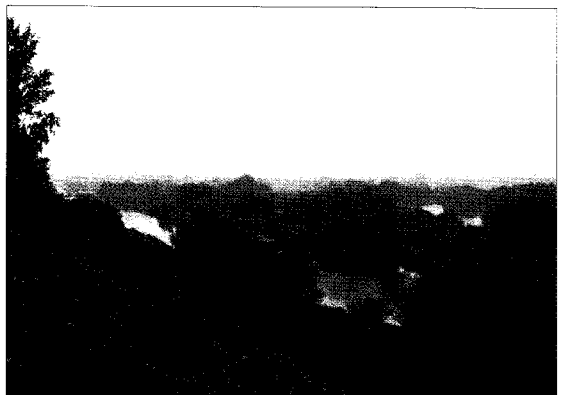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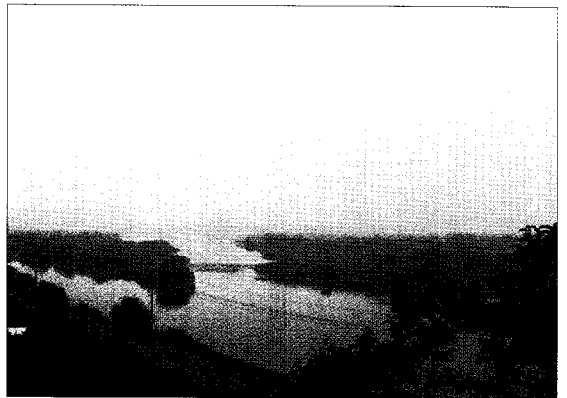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강가에는 아름다운 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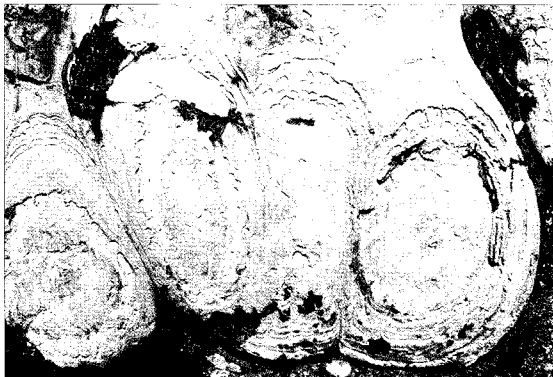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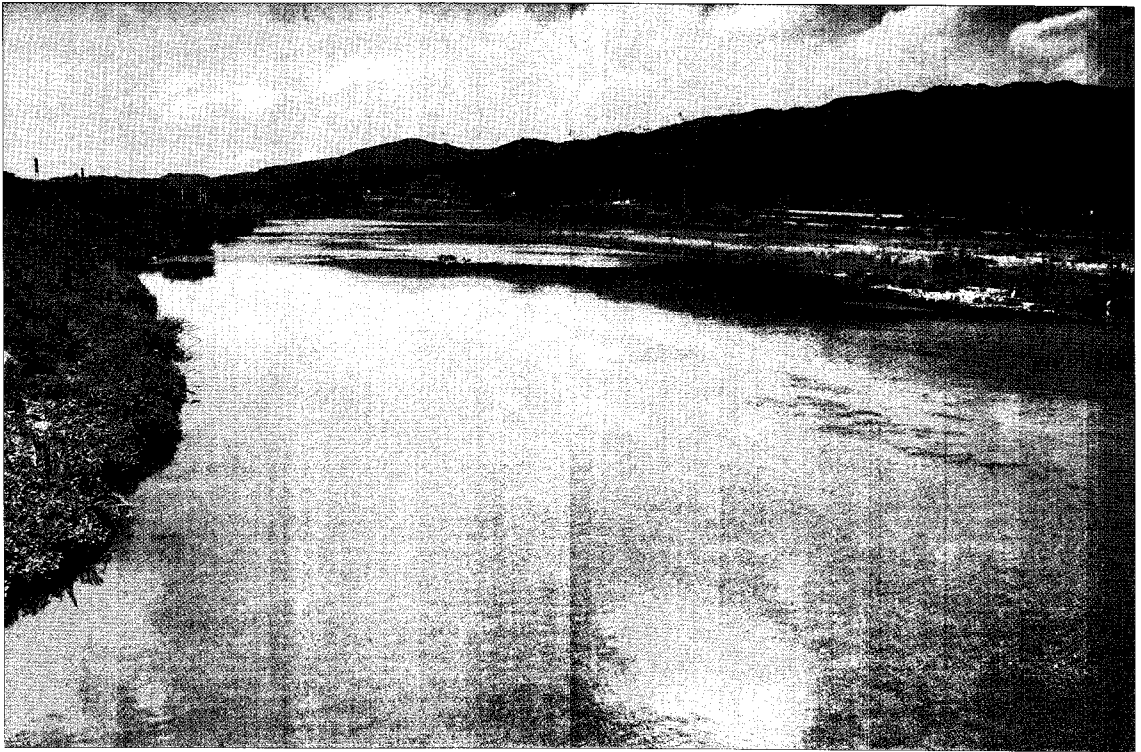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 의 기운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금호강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은호리와 만난다.

### '은호리' 일대의 아름다움

길에서 보노라면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기가 어 려울 정도로 산기슭 쪽으로 돌아앉았다 하여 은호(隱湖)라 부르게 된 이 일대는 물피미라 불리어 왔다. 지금은 금호강 에 닿아 있는 산자락을 절개한 넓은 4차선 도로가 대구로 이 어져 있지만 30년 전 하양에서 대구로 가는 차로는 이 물뜨 미의 절벽을 따라 꼬불꼬불 절묘하게 이어져 있었기에 이곳 을 지나와야 나의 하루가 무사했음을 확인할 정도로 아찔한 곳이었기에 더욱 강하게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동 안 세월과 더불어 놀랄만한 생활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옛날 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나마 간직되어 있기에 감사한 일이





들이 발달하여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 은호리는 그 경치 못지않은 가치도 가지고 있다. 은호리의 속칭 사열 계곡내 퇴적암 등에서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조각류·용각류)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화석에서는 조각류에 해당하는 이구아나돈류 초식공룡의 발자국이 가장 많았다. 용각류(네발로 보행하는 목이 긴 초식공룡)도 있었으나 육식공룡에 속하는 수각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윤곡이 비교적 양호한 10여 개의 화석은 발길이 20cm 정도의 초식공룡에 해당하는 발자국으로 보였고, 윤곡이 흐릿한 발자국들도 수십 여 개 발견되

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이 계곡 하상이고 물살로 인한 오랜 침식 등으로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지만 팔공산 화강암 지대와 가까운 곳에서는 공룡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트로마톨라이트화석이 집단적으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물 가운데 하나인 단세포 원시 미생물 위에 작은 퇴적물 알갱이가 겹겹이 쌓여 형성된 퇴적구조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지질자료이며, 은호리의 이러한 상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것이다.

이토록 소중한 금호강의 300리 물길은 달성군 다사면에서 낙동강과 합류하기까지 우리들이 짐작할 수 없는 숱한 이름 다옴과 생명줄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흐르고 있는 것이다.

